

여수시 ‘착한 물가 도시’ 조성 나섰다

섬박람회 앞두고 물가 안정화 총력
숙박·음식업소 물가 TF 협력회의
모니터링·캠페인 등 활동도 지속

여수시가 지난 16일 ‘2025년 숙박·음식업소 물가안정 전담팀(TF)’의 부서 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착한 물가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외식비 및 숙박요금 동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물가안정 추진사항과 주요 정책 등 물가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여수시 작년 하반기 외식비 조사 결과, 일부 품목은 소폭 높았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해 대부분의 품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냉면·비빔밥·갈국수 등은 전국이나 전남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여수 대표 음식인 ‘여수 5미’도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제한적으로 이뤄져, 관광객의 제값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시는 올해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 반·관합동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 16일 ‘2025년 숙박·음식업소 물가안정 전담팀(TF)’의 협력회의를 갖고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30만원씩 2046개소에 지원했다. 특히, 상반기 내 착한가격업소를 127개소까지 확대 지정, 업소당 최대 9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부담요

금 및 불친절 업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시는 최근 4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시민평가단과 감시요원 운영’, ‘숙박·음식업소 위생 및 가격 지도점검’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경로당 30곳에 그린PC 보급 설치

1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 지원도

광양시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그린PC’를 보급했다.

‘그린PC’란 내구연한(5년)이 경과된 업무용 볼용 PC를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재정비해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컴퓨터다. 시는 어르신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 도촌경로당 등에 이를 보급했으며, 지원된 PC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린PC 설치와 함께 인터넷 연결, 한글 프로그램 설치, 사용법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병행했다.

이번 사업으로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온라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미 광양시 디지털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은 자원 재활용과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디지털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광양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총 18대의 사랑의 그린PC를 정보소외계층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을 통해서도 무료 PC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부

곡성군이 최근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성금 1700여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곡성군 공직자들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각종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총 1756만원이 모금됐다.

해당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앙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며, 곡성군의 자매결연 지자체인 경북 영양군을 비롯하여 산청군, 안동시, 영덕군, 청송군 등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지자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많은 공직자와 지역 주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곡성군 또한 5년 전 수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국 지자체의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모금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에 모인 성금이 산불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고흥 유자라면, 서울 입맛 사로잡았다

한강공원서 3일간 시식행사

시민 2000여명 몰려 큰 호응

고흥 특산물 홍보 효과 ‘톡톡’

고흥군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진행한 ‘고흥 유자라면 시식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푸드트럭을 통해 현장에서 제공된 ‘유자라면’은 행사 첫날 600여명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고, 우천 속에서도 150명이 방문한 2일 차를 지나, 마지막 날에는 무려 1200여 명이 시식에 참여하는 등 최고조의 열기를 보였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준비한 재료가 조기 소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자라면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시민들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행사 현장에서는 유자라면의 재료나 구매처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고, 고흥물에 입점된 제품을 찾는 시민들도 많았다. 고흥 특산물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높아지며, 단순한 시식 행사를 넘어 지역 농수산물 홍보 효과도 톡톡히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행사에는 유튜브 3명이 현장을 직접 취재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라디오 생중계와 현장 인터뷰도 함께 진행돼 미디어 노출 효과 또한 컸다. 행사 전반에 걸쳐 고흥군이 의도한 ‘고흥 유자의 새로운 활용’과 ‘미식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반응을 바탕으로 유자

라면의 상품화와 함께, 고흥 미식 콘텐츠의 도시 확산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 유자라면은 지난해 고흥유자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레시피로, 이우석 셰프와 협업해 닭 육수와 유자의 향긋함을 조화롭게 살린 깔끔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미식콘텐츠 경쟁력을 널리 알릴 나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왕조1동, 치매예방 치유교실 호응

11개 경로당 참여 6월까지 운영

순천시 왕조1동이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치유교실인 ‘신나는 뇌운동! 희희낙락 교실’을 최근 개강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운영되는 ‘신나는 뇌운동! 희희낙락 교실’은 2025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되며, 11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신체 활력과 뇌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표현하고, 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공동체

의식을 다진다. 온몸을 자극하는 가벼운 스트레칭, 음악에 맞춘 신나는 몸풀기, 기억력 및 인지훈련 등의 활동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신나는 몸동작을 하니 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좋다”고 말했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이번 치유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통 기회를 넓히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주최
주관

장성군
장성군축제위원회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2025. 5. 10. - 5. 11. 장성 황룡강변

전야제 5. 9.(금)

뮤직 페스티벌 5. 10.(토)

나들이 5. 12.(월) - 5. 18.(일)

2025 장성 황룡강변의 해